

영광 계마항,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선정

해수부 공모 선정 국비 150억 확보
시설 정비… 관광·휴식 기능 강화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
“지속가능한 어촌 미래 조성 노력”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이 지난 22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계마항은 기능과 환경,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형 국가어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영광군은 어항 환경 정비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28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선정으로 계마항은 친환경 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계마항은 197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영광군 최대 규모의 어항으로 성장해왔으며 어업 기능뿐만 아니라 해마다 관광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복합형 어항이다.

이번 사업 선정은 낙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관광·휴식 기능을 강화해 명품 클린어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평가된다.

영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공간 조성 및 체류형 관광지 조성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정비 △어구 정리 공간 확보 △공원 및 휴게시설 확대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 △바다 런웨이 및 낚시 체험 공간 조성 등이 포함돼 어업인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어항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계마항의 이번 선정은 군민과 어업인 모두의 오랜 바람이 결실을 맺은 성과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어촌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영광군은 어항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삼아 해양·관광·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클린 어항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2025년 국비 확보액 총 422억원으로 영광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106억원), 종교순례테마관광명소화(94억원), 미래 모빌리티 충돌안전인프라 고도화(100억원) 등 각종 공모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가정의 달 특별 프로그램 운영
국립장성숲체원, 5월2일부터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장성숲체원은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상시형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기념해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소통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기간 동안 림탐정 흥길동, 자연물놀이 체험, 생태 그림책 체험 등 총 3종의 프로그램을 국립장성숲체원 산림교육센터에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특히 ‘림탐정 흥길동’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탐정이 되어 다양한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정답을 맞힌 참가자에게는 △나무액자 키트 △포이 안전우산 △곤충 바람개비 △포이 열쇠고리 등 어린이 맞춤형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산림교육과 산림치유 가족캠프 당일형과 숙박형(1박2일)도 운영한다.

신청 방법은 유선 상담(061-399-1800)을 받은 뒤 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종근 숲체원장은 “이번 5월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누구나 편하게 숲을 즐기고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5월10일~11일 황룡강 일원서



전라남도 장성군이 봄꽃으로 물드는 황룡강에서 설렘 가득한 음악 축제를 연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뮤직페스티벌’로 변신에 성공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9일 오후 6시 황룡정원 주무대에서 열리는 전야제에는 이찬원, 운수현 등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흥을 돋운다.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일 오후에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장성뮤직페스티벌’의 막이 오른다.

독보적인 락 보컬 하현우를 필두로 한 실력과 밴드 ‘국카스텐’과 소울(soul)바탕의 감각적인 음악을 선사하는 ‘카더가든’, 유다빈밴드, 범키, 연정, 리제, 이종민 7명의 뮤지션들이 ‘봄날 감성’을 충전해 줄 예정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상생감사석’은 100석을 늘려 총 300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석은 5월 중 장성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다.

현장 접수처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1장의 입장권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0석은 장성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장성군은 지난 2024년 1월 이후 기부자 50석, 현장기부자 50석으로 나눠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열린음악회’, ‘신나는 난타 한마당’, ‘봄꽃예술 한마당’ 등의 소규모 공연도 준비되며 수국터널, 미니어처, 시화전 등의 볼거리도 갖췄다.

허기를 달래줄 향토식당, 간단먹거리, 푸드트럭과 농특산물 판매부스는 그라운드골프장 인근에서 찾을 수 있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컨테이너형 수유실 등도 운영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축제 기간을 단축하고 개최 장소도 황룡정원 인근으로 한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페스티벌의 밀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아름다운 음악과 봄꽃 향기 가득한 장성 황룡강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화순군 동면 행복Dream 봉사단 직원들이 지난 25일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생활폐기물 수거 등 환경 정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동면 행복DREAM 봉사단,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행복Dream 봉사단이 지난 25일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28일 화순군에 따르면 이날 봉사에는 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동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주택 입구 잡목 정리·집 청소·생활폐기물 수거 등 실질적인 환경 정비 활동을 진행

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생활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박연 민간위원장은 “작은 힘이지만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

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가는 따뜻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공공위원장은 “민관이 협력해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 돕는 현장 중심의 복지 실천을 통해 살기 좋은 동면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상무평화공원 복합놀이시설 조성
장성군, 2026년 8월 준공 계획

전라남도 장성군이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에 사계절 복합놀이시설을 조성한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육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자연의 흐름을 담은 테마공간’을 콘셉트로 놀이시설 냉·난방시설을 갖춘 가족 휴게시설(티하우스)과 그늘막 등 휴게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놀이시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등대 조형놀이대, 네트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마운딩 공간)로 구성해 물놀이장과 일반 놀이터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다.

장성군은 지난달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민과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8월께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온 가족이 사계절 즐겨 찾는 놀이공간을 조성해 상무평화공원 이용 및 장성 방문 활성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함평군 신광면, 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성황

행운권 추첨 등 프로그램 다채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이 ‘제45회 신광면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면민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함평군은 28일 신광면 번영회(회장 오태호)가 주관한 제45회 신광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26일 신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이남오 함평군의회의장, 모정환 도의원 및 군의원, 오태호 신광면 번영회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 출향인사,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면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광면 우도농악단의 흥겨운 농악공연으로 포문을 연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평양예술단 공연, 면민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지난 26일 제45회 함평군 신광면민의 날 행사가 신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함평군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단체들이 행사 운영과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민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며 행사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내렸다.

오태호 신광면 번영회장은 “모든 면민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오늘 행사를 추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신광면

은 동학운동의 선봉지이며 일강 김철선생의 생가가 있는 역사가 살아있는 고장이다”고 말했다.

심희숙 신광면장은 “신광면민의 날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며 면민 모두가 하나되는 뜻깊은 자리다”며 “앞으로도 면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면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